

성령강림 후 14주일/2021년 8월 29일

구약: 아가 2,8-13

서신: 야고보서 1,17-27

복음: 마가복음서 7,1-8,14-15, 21,23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

1. ‘경건’(敬虔)의 사전적 의미는 ‘초월적(超越的)이거나 위대(偉大)한 대상(對象)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操心)하는 상태(狀態)에 있음’입니다. 경건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경건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의미의 경건은 제도적으로는 성전과 예배, 율법과 경전으로, 개인적으로는 종교 활동과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될 수는 있지만, 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과 몸이 분열되어, 사람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면, 그는 위선자입니다. 종교인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창시자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자신은 물론 그가 믿는 종교 자체도 불신을 받는 법이지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특별히 음식과 관계된 정결규정이 강조되었습니다. 특정한 음식을 금기하거나, 손과 몸을 씻는 일,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 심지어 침대 등을 물에 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일종의 지방감찰권을 행사했던 권위를 가진 적대자들이었음을 암시합니다.¹⁾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그것은 호기였습니

1)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54.

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
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막 7,5). 이들의 비난은 위생적인 관습이
아니라, 제의적인 관습의 위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곧 경건성을 문제 삼은 것
이지요.²⁾

그러나 사실 손을 씻는 행위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었
고,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 곧 확대 해석된 구전율법에 있는 것이었
습니다.³⁾ 구약성경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들만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
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출 30,18-21; 40,31; 레 15,11 참조).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손을 씻어야 한다는 요구를 일
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시켜 적용하려고 한 것이지요.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명령,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
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며, 모든 유대인 가정은 성전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⁵⁾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기준의 상세한 법을 만들어 강요함으로써, 가
난하고 힘없는 민중을 부정한 죄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결국 법을 만든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이
격분하신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성문을만이 아니라 확대 해석된 구전율
법, 곧 장로들의 전통을 백성들에게 강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소위 ‘구전된 율법’(Oral Torah)은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귀환한
제사장 에스라(기원전 480년-440년) 이후, 유대의 서기관들이 성문을
(Written Torah)을 유대인의 실생활 구석구석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법
입니다. 그 구전율법은 6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안식일에 관한 것만도 39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율법학

2)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55.

3) 조엘 마커스, 마가복음 I, 류호영, 장성민 역, CLC, 2016, 743.

4)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56.

5) 조엘 마커스, 마가복음 I, 류호영, 장성민 역, CLC, 2016, 756.

자들의 해석 전통이 점점 더 큰 권위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율법과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 것이지요.⁶⁾ 심지어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성문율과 구전율을 모두 받았지만, 구전율이 성문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 구전율을 율법의 율타리라고 생각했습니다.⁷⁾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비판하셨고, 그들이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막 7,8-9).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전통으로 무력화시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위선을 이룬바 ‘고르반(Korban) 법을 예로 들어 폭로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인 부모공경은 부모를 물질적으로 부양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공경’은 부모에게 음식과 음료와 의복을 제공하고, 부모를 보호하고 안팎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⁸⁾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이것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선언하면, 하나님 외에 누구도 그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공양의 의무를 기피할 수 있었습니다.⁹⁾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이런 구전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인간에 대한 봉사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었지만, 타인, 심지어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정당화해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인간에 대한 봉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기에,¹⁰⁾ 지도자들의 위선과 종교를 핑계 삼아 도덕적 책임을 교묘하게 면하려는 악한 행위를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전되고 확대 해석된 율법으로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왜곡하거나 파괴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사람

6)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58.

7) 박수암, 마가복음, 대한기독교서회, 1993, 334.

8) 조엘 마커스, 마가복음 I, 류호영, 장성민 역, CLC, 2016, 747.

9) 박수암, 마가복음, 대한기독교서회, 1993, 338.

10)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60.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막 7,15),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막 7,19)고 말씀하심으로써, 사실상 타협 없이, 급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구약성경에 있는 식물의 정결 혹은 부정에 대한 규례들을(레 11장부터 15장) 철폐하셨습니다.¹¹⁾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켜주는 물질은 그 자체로 선하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은 정결하고, 다른 것은 불결하다고 규정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욕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황홀경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네 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 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하는 음성이 들려왔지요. 놀란 베드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행 10,9-15).

초대교회의 이방인 선교를 연 결정적인 사건의 하나이지만, 사람과 음식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유대 정결법이 폐지된 전형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딤후 4,4)는 입장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배로 들어오는 음식이건, 눈으로 들어오는 색깔이건, 모양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함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막 7,20-23)고 말씀하십니다.

11) 박수암, 마가복음, 대한기독교서회, 1993, 344.

부정함의 진정한 원천은 음식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의지에서 나쁜 생각이 생겨납니다. 악마는 이미 있는 나쁜 생각을 부추길 수 있을 뿐이지요.¹²⁾

성경의 이해에 따르면, ‘마음’(kardia)은 사람의 생각(창 6,5), 욕망(마 5,28; 6,21), 의욕과 노력과 감정(롬 9,2), 언어(마 12,34), 뜻(고전 4,5), 사상(고전 10,6-8)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또 눕는 자리입니다.¹³⁾ 마음은 한 사람의 의지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심에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거나(막 7,6), 나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는 일은(막 7,21) 심각한 죄였습니다.¹⁴⁾ 사실 마음과 행동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은 반드시 악한 행실로 드러나고, 선한 생각은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듯이, 마음과 행동은 마치 거울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2. 마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 사이의 괴리 혹은 분열을 경계한 전형적인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신학의 역사에서 야고보서는 가장 논쟁적인 성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후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27권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고 주장한 16세기 독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 지푸라기에 불과한 서신이라고 혹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약 2,24)고 주장하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26)고 윤리적 행동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아무런 복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여겨, 1522년 독일어로 출판된 그의 신약성경 초판에서 야고보서를 제외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사도 바울과 루터의

12) K.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66.

13) J. 그닐카, 마르코복음(I), 한국신학연구소, 1985, 362.

14) 데이비드 바틀렛, 교회력에 따른 복음서 설교 2021년, 고현영 외 역, 동연, 2020, 541.

입장과 충돌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역사적 상황의 차이를 바로 보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다’(갈 2,16; 롬 3,28)라고 말한 것은 모든 신앙적 행동을 무효화하거나 쓸모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율법은 긍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일종의 개인교사 역할을 합니다(갈 3,24). 즉 신앙의 길에 이르는 교사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율법의 성취가 자칫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돋보이게 하는 위험을 바울은 지적한 것이지요. 바울이 반대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파괴하는 ‘율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의를 이루려는 종교적 행위를 비판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롬 3,31)라고 말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약 2,24),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약 2,26)고 말할 때에도, 그는 믿음 대신에 실천, 듣기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문자적 준수가 아니라, 윤리적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과 그가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약 2,24)고 말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윤리적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동시에 윤리적 실천의 원천입니다. 믿음과 실천은 사실상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

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약 1,26-27)고 말한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의 본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예배’를 의미합니다. 영어성경은 경건을 ‘종교’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저자가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공적이고, 공동체적인 종교 활동과 개인의 윤리적 실천이 결합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라’(약 1,19)는 권면이나,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약 1,26)이라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약 1,27)이라는 말씀은 모두 개인의 윤리적 실천과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않는 혀와 분노가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을 헛되게 만드는 것임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곧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고 훈련하지 않아도 교회만 다니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유전자결정론이지요. 세례 받은 것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어떤 설교도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야고보서 저자가 말하듯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사람’(약 1,22)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훈련 없이는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는 경건을 얻을 수 없습니다(딤후 4,8).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야 한다.’(약 1,21-25)고 야고보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 하나님 경외하기, 예배는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경건의 훈련은 무슨 대단히 크고 중요한 일이나 결단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시작하고 끝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고, 노하기도 더디 하기’(약 1,19), ‘들은 말씀을 행하기’(약 1,22), ‘자기 혀를 다스리기’(약 1,26), ‘고난을 겪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약 1,27)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쉽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실천들이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니, 우리는 다만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설교 후 기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마 25,21)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많은 일을 맡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즐거운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이 탈레반이 점령한 수도 카불을 탈출하여 무사히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이들을 지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감동시킨 것은 이들의 입국을 환영하면서 환대하는 진천 시민들과 수많은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이삭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처럼(창 18,1-14), 우리도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환대하여,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다음 날 카불 공항 근처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피난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과 파괴를 정당화하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박해 때문에 자기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지켜주 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투병중인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해주시고, 지친 가족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며, 힘든 세월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 주님 백성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